

조선후기笠飾에 대한 연구

장 숙 환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특임교수

A Study on 'Ipsik'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ok-Whan Chang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6. 1. 접수; 2007. 10. 27.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a review of Ipsik, the decorative ornaments found on traditional Korean horsehair hats, known as Ipja, which were worn by 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 a broad sense, Ipsik are regarded as men's accessories. Therefore, although this study is limited to Ipja, it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delves into one facet of men's accessories in detail.

Because the appearance of the horsehair hats was rather mundane, Ipsik and Ibyeong were added as ornaments. During the Joseon period, various types of hat ornaments existed, named Maeksu, Hosu, Gongjagu, Sangmo, Jingdori, Ijeon, Gyeongja and Ibyeong. A person's social ranking and class could be discerned by the materials used in the Ipsik he wore.

Jeongja, a decorative accessory used to attach to an official's hat,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sixteenth year of King Gongmin's reign(1367), during the Goryeo Dynasty, prior to the founding of China's Ming Dynasty in 1368, which indicates that Jeongja were influenced by the Yuan Dynasty. A record in Lao Chi'ta (a textbook of spoken Chinese estimated circa 1346) confirms this fact. Based on a review of literature, we learn that just as with Ongno, Jeongja were imported for use on Jeonrip, a soldier's hat.

During the Ching Dynasty, Jeongja were further subdivided and more exquisitely designed. On the other hand, in the Joseon Dynasty, a rule was handed down mandating that a royal prince use gold for his jeongja, officials at third rank or above use silver, and governors, commanders in chief, and officials with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 and Office of Censor General use jade. Inspectors were permitted to use crystal. Jeongja made of jade were used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Jeongja(정자, 頂子), Ongno(옥로, 玉鸞), Hosu(호수, 虎鬚), Gongjagu(공작우, 孔雀羽), Sangmo(상모, 象毛)

I. 서론

본 연구는 조선후기 남자 冠巾笠帽 중의 하나인 笠子를 장식한 笠飾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유교문화의 핵심인 ‘仁義禮智信’ 가운데 ‘禮’는 복식문화에 가장 적합한 가치적 표현으로 의 관문화를 중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복문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었던 頭飾 문화의 일면을 파악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입자의 장식품은 대부분 남자의 장신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여자 장신구에 관한 발표 논문은 많았지만 남자 장신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자에 한정되었지만 남자장신구의 일면을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함께 현존 유물에 대한 실증연구를 優位에 두었다. 입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언제부터 사용하여 왔으며 언제까지 존속되었는지를 문헌 고찰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시에 조선시대에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였던 중국의 입식과의 영향 관계도 일부 유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笠子の 笠飾

본 논고는 笠子の 장식에 관한 연구이므로 장식에 있는 초립·흑립·주립·전립 순으로 고찰하고, 장식이 없는 입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笠制의 구체적인 형태상의 변모나 발달 등도 배제하였다.

조선시대 입자의 종류는 평량자 계열의 평량자[패랭이]·초립·흑립·백립·주립·옥로립·전립 등과, 방립 계열의 방갓·삿갓 등으로 다양하며 용도와 계층에 따라 달리 사용하였다. 이들 입자 중에서 흑립은 패랭이에서 초립을 거쳐 형성된 조선 입제의 정수이며 조선시대의 대표적 관모로서 일반적으로 ‘갓’이라고 하면 곧 흑립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양반 남자의 상징인 갓[笠子]을 꾸미는 갓 장식[笠飾]에는 갓머리 장식과 갓끈[笠纓]이 있다. 갓머리 장식에는 頂子·雀羽·象毛

[槩毛]·麥穗·虎鬚·烏銅笠飾·耳錢 등이 있는데, 용복의 주립이나 초립에는 맥수나 호수·공작우를, 전립에는 옥로정자·금동정자·공작우·상모를 달아 장식하였다.

1. 흑립과 玉頂子

頂子란 흑립이나 전립의 정수리에 옥이나 기타 금은주옥으로 장식한 꾸밈새로 일명 微子¹⁾·증자라고도 한다. 정약용의 『雅言覺非』에는 “頂子を 微子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 음이 잘못 옮겨진 것이다.”²⁾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정자가 옳은 표현임을 알 수 있으며 증자란 말도 사용되었던 듯하다

한어 학습서였던 『老乞大』에 보이는 입식에는 서번련금정자·금정자·홍영·양지옥정자·호박정자 등이며 이외에 紅纓[象毛, 槩毛]이 있는데, 대부분은 정자이다. 이 중 양지옥은 『譯語類解』에서 ‘양의 기름 같은 옥’이라고 하였다. 『漢文大辭典』등에서는 양지옥이란 양지미옥 이라고도 하며, 옥의 일종으로 반투명하며 양기름[洋脂] 색이 나는 옥이라고 하였다³⁾.

이렇게 帽의 정상에 진주·옥·보석 등을 사용하는 것은 元에서 시작된 것으로, 明에서도 이러한 원의 습속을 받아들여 모의 정상에 옥·금주·은·마노·수정·香木 등을 사용하고 전립의 위에도 보석정자를 사용하였다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민왕 16년(1367) 7월에 帽頂珠裝飾을 제도화하여 착용한 기록이 있는데⁵⁾, 明의 건국이 1368년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모정주장식은 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老乞大』에 있어서도 정자의 기록은 『原老』에서부터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잡화물품 목록에 정자가 다수 기록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에서 14세기 중엽에 이미 정자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⁶⁾.

『노걸대』에 보이는 笠飾의 명칭을 표로 만들면 <표1>과 같다.

『高麗史』志 26 輿服에 보면, 우리나라의 군신 관복은 이미 토풍에 맞도록 제정하여 상하의 구분이 있도록 하였으므로 바꿀 수 없는데 근래 편리함에 따라 고쳐 높고 낮은 것이 섞여 분별

<표1> 『노걸대』에 나타난 笠飾

	原老	刪改·老諺	老新·重老諺
笠飾	紅纓, 西番蓮金頂子, 洋脂玉頂子, 金頂子, 琥珀頂子	紅纓, 金頂子 (金頂), 洋脂玉政子, 琥珀頂子	紅纓, 羊脂玉頂子, 金頂子, 琥珀頂子

이 없다. 금후로는 제군·제추·대인·판서·상대호군·판통례문·삼사좌우윤·지통례문은 흑립에 白玉정자를 하고, 삼친중제총랑·삼사부사·팔비신·전배후전호군은 흑립에 靑玉頂子를 하고, 여러 정랑·좌랑은 흑립에 水精頂子를 하고, 성대·성균·전교·지제교원 및 외방의 각 관원은 흑립에 정자는 품위에 따를 것이며, 현령·감무는 흑립에 舞臺水精頂子를 하도록 하였다. 공민왕이 백관들의 등위를 가르기 위해 흑립에 정자를 달게 한 것에서 정자의 유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조선시대로 이어져 『經國大典』禮典儀章條에 의하면 대군은 입식에 金頂子를 사용하며, 정삼품 이상은 銀頂子를 삼사의 사헌부·사간원의 관원과 관찰사·절도사는 입식에 玉頂子를 사용하고 감찰은 水精정자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제도는 『大典會通』에 기록된 제도와도 동일하다.

연산군 대에는 왕이 강권으로 대간들의 정자를 제거시키려고 한 일이 있었으나 바로 복고되었다. 한말 『大典會通』에 기록된 바를 보면 현직·전직 大臣이나 將臣은 의식 때에 용복과 군복을 입었을 때 입식으로 옥로를 하였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신 또한 옥로를 하였다고 한다.

옥로정자는 옥으로 해오라기 [白鷺]의 형상을 조각한 것으로 정자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것이다. 고대 중국의 조류백과 『禽經』에 보면, “백로는 청빈하고 결백한 벼슬아치나 세속에서 초연한 선비의 기상이요, 백로가 날개 치는 자태는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과 덕으로 포용하는 리더십이다.” 라고 하여 백로를 청백리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먼저 문헌에 보이는 정자에 관해 찾아보면, 『朝鮮王朝實錄』태조 3년(1394) 6월조에 직품에 따른 금제에서 금·은·옥과 비단·명주를 금하면서도 品帶와 臺省 관원들의 정자에 금·은·옥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았고⁷⁾ 세종 26년

(1444) 1월조에는 倭 사신에게 내린 왕의 하사물 가운데 紅氍帽·象毛·玉頂子·鍍銀臺玉·壓纓兒와 인삼 50근 등이 보인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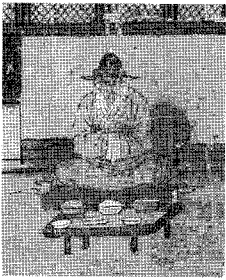
『增補文獻備考』성종 22년(1491)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교외에 거동[行幸]할 때에 대간의 복색은 내전에서 옥정자 갓을 내어 대사헌 韓致亨, 대사간 成俊에게 하사한 뒤부터는 용복을 입지 아니하니, 매우 불가 합니다. 다른 백관의 예에 의하여 용복으로 수가하게 하소서.”⁹⁾ 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내용에서 조선 초기에 왕이 倭 사신에게 옥정자를, 대사헌·대사간에게 玉頂子笠을 하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연산군 8년(1502) 6월조에는 혼인 사치 금지에 관한 사헌부의 쟁에 “지금부터 채단과 침구에 사라능단을 쓰는 사람과 갓의 장식에 금은주옥을 쓰는 사람과 갓끈에 산호·유리·명박을 사용하는 사람 … 당상관의 자녀를 논할 것 없이 일체 모두 금단 시키라.”고 했다. 즉 당상관의 자녀를 막론하고 갓의 장식에 주옥을 금한 것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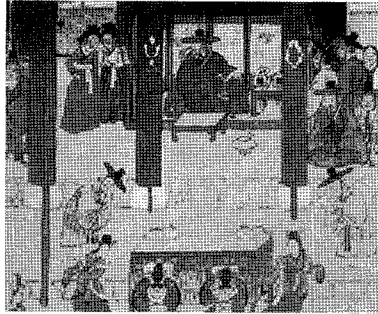
또한 연산군 11년(1505) 5월조에 帶方夫人 진헌품에 대한 답례 중에 보면, “대방부인 및 具壽永이 바친 白玉菖蒲蓮鷺交綬頂子の 값 縣布 220필, 淡靑玉麒麟小印의 값 면포 160필, 白玉龍牧丹起花吐環의 값 120필, 金龍雲頭起畫珊瑚樹의 값 면포 240필, 金龍頭珊瑚樹의 값 면포 300필을 주어라.”¹¹⁾ 고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초기의 글에서는, 대성 관원들의 정자에는 금·은·옥을 규제하지 않았으며, 왕이 倭 사신에게 옥정자를 하사하고 있다. 반면에 진헌품 가운데는 현존하는 옥로 정자와 흡사한 백옥창포연로사교삼정자가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비교 연구가 주목된다.

『增補文獻備考』영조 33년(1757)에, “정축년에 이와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무릇 능에 거동할 때에 畿伯[경기감사]은 옥정자를 떼어 버렸는데 이것은 지나친 일이다. 이 뒤에는 전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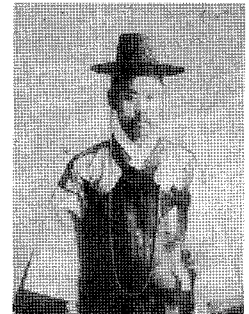
<그림1> 玉鷺筵을 쓴
戶曹判書
『韓國의 美』



<그림2> 浮碧樓 宴會圖 [平壤監司饗宴圖]
『韓國의 美』



<그림3> 玉鷺筵을 쓴
閔泳翊
『옷과 그들』



<그림4> 玉鷺筵을 쓴 관료
『사진엽서로 떠나는
그림엽서』

장식하게 하고, 都憲[대사헌]의 玉頂子, 감찰의 水晶頂子, 대사헌의 獬豸褙子도 모두 예전대로 하라.”¹²⁾ 고 하여 초기의 법전대로 돌아가고 있다.

다음에는 회화나 사진 등에 보이는 옥정자와 현존 유물의 옥정자를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조선 초기(1550년경)에 그려진 戶曹郎官契會圖는 옥내에서 열리고 있는데, 戶曹에서 正郎이나 左郎을 지냈거나 봉직하고 있던 낭관들의 것이다. 9명이 각각 음식상을 받았고 뒷면 중앙에 가장 크게 그려진 인물이 특별 초대된 호조판서나 참판으로 추측된다. 그의 모정에는 옥로가 보이고 갓끈도 붉은 옥구슬로 여겨진다 <그림1>.

<그림2>는 전 김홍도 그림으로 알려진 부벽루연회도 [평양감사향연도]이다. 평안도 관찰사가 새로 부임하여 모란봉 기슭의 부벽루의 야외에서 벌어진 연회를 그렸다. 감사는 흑립에 첩리를 입고 칼을 차지 않고 앉아있는 것으로 보아 편복차림으로서 융복을 입은 것 같다. 감사의 복식은 흑립에 남색첩리를 입고 紅廣帶[광다화]를 띠어 帶端을 길게 늘어뜨렸으며, 帶 앞 좌측에 병부 주머니 한 쌍을 늘이고 있다. 흑립의 정상에 옥정자가 달려 있고 紅黃의 영자가 달려 있다.

또 다른 그림은 월야선유도인데 해가 진 뒤 대동강에서 벌어진 새로 부임한 평안감사 환영 잔치가 본격적으로 펼쳐져 있다. 감사의 복식은 부벽루연회도와 같으며 흑립의 옥정자도 보인다.

檀園의 풍속화의 하나인 평생도 병풍에서도 옥로립을 착용한 인물이 있다. 평생도는 당시

양반계급사회의 생활양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만을 골라서 12장에 담은 것으로 당시의 사람이면 누구나 염원하던 이상적인 삶과 꿈의 표본이기도 했다¹³⁾. 세종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평생도병풍의 7번 장면인 「판서시임」에서 초헌을 탄 사람의 관모가 옥로립이다.

옥정자가 보이는 그림이나 사진이 적어서 옥정자에 대한 보충설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은 문헌기록보다도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1890년대로 알려진 閔泳翊 像은 중국 망명시의 귀한 사진으로 옥로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흑립 정상에 절반만 보이는 옥로는 옥초롱 簪形인데 정수리가 뾰족하게 솟은 것이 특이하다 <그림3>. 또 한 장의 사진은 1920년대 엽서로 부산 吳竹堂 발행이라 적혀있고 제목은 ‘관료’이다. 허리 밑까지 내려온 갓끈이 이채롭다. 첩 [簪]이 좁은 흑립에는 작은 옥로가 보인다<그림4>. 다른 한 장의 초상화는 권오창 화백의 그림으로 조선말기의 문신 沈東臣 像이다. 역시 융복 차림에 옥로립을 쓰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무관 李聖俞(1713~1791)의 군복 초상화에는 전립에 옥로를 부착한 것이 보인다. 이 초상화는 1782년(정조 6년)에 완성한 것으로, 『궁중발기』에 ‘군복도’에서 군복에 옥로가 부착된 전립을 착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1) 『궁중발기』에 나타난 頂子

『궁중발기』에 보이는 옥로정자에는 현전유물에서 볼 수 없는 재료인 산호·비취옥·자마노가 사용되었고, 형태도 산호봉로·비취옥봉로·진옥삼층로·고동향로와 산호로·비취옥로·자마노로가 있다.

순종의 壬午冠禮·嘉禮(1882)의 일년 전인 1881년의 임오가례 「대비브팀」에는 各色玉鳳鷲가 있는데 글자로 보아서는 해오라기와 봉황이 합쳐진 형태인 것 같은데 정확한 모양은 알 수가 없고, 철종어진에 보이는 죽전립에 부착된 옥봉황형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紫瑪瑙鷲는 <그림7>과 같은 형이라고 보는데, 笠에 부착하는 臺가 없는 球形의 자마노 위에, 부분적으로 도금이 된 은제 해오라기가 얹아있

는 모양이다. 자마노 대신 산호나 비취옥의 구형에 해오라기가 얹아있는 것을 산호로, 비취옥로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丙寅嘉禮時(1866, 추정)에는 珊瑚鷲가 보인다. 임오가례 「대비브팀」에서 진옥삼층로라는 것은 백옥을 이중 혹은 삼중으로 투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고동향로는 옛날 고동향로의 뚜껑꼭지를 만들려고 수입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임오가례 「대비브팀」에서 산호로·비취옥로·자만호로·진옥로에 각각 십견, 십이견의 내용은 봉노·평응복노·군복노로 되어있다. 여기서 봉노는 흑립에 부착하는 것, 평응복노는 주립에 부착하는 것, 군복노는 전립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전립식차」에 簪子(또는 簪子)가 보인다.

<표2> 『궁중발기』에 나타난 頂子¹⁴⁾

명칭	수량	출처	명칭	수량	출처
산호노 (봉노3 평응복노3 군복노4)	십견	임오가례 「대비브팀」 (1881)	산호노	삼개	「임오관례시가례시 패물블기초초갑인년 창덕궁의보노1오실블기」 (1882)
비취옥노 (봉노3 평응복노2 군복노5)	십견		비취옥노	칠개	
자만호노 (봉노3 평응복노2 군복노5)	십견		옥노	십스개	
진옥노 (봉노5 평응복노2 군복노5)	십이견	「신스오월나각 순브팀블기」	자만호노	팔개	
珊瑚鳳鷲	伍箇	「珮物件記」	翡翠玉鷲	二箇	임오가례시(1882) 「新造珮物記」
紫瑪瑙鳳鷲	伍箇		紫瑪瑙鷲	一箇	
翡翠玉鳳鷲	伍箇		眞玉鷲	伍箇	
眞玉鳳鷲	伍箇		珊瑚鷲		병인가례시 추정(1866) 「가례시운현사랑덕」
珊瑚鷲	拾伍箇		玉鷲	二箇	「文房裝身具件記」
紫瑪瑙鷲	拾箇				(전립식차) 「괴록스월산가는블기」 「笠子件記」 「임진구월산드은드소 입블기」
翡翠玉鷲	拾伍箇				
眞玉鷲	拾箇				
眞玉三層鷲	伍箇				
古銅香鷲	伍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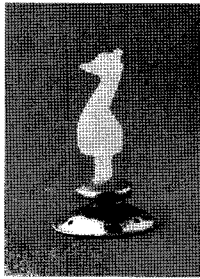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궁중발기』 내용으로 보아 임오가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해에 순종이 사용할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에 각종 옥정자가 있는 것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1866)에도 산호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도 옥정자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전립의 증자도 수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玉頂子の 形態別 特性의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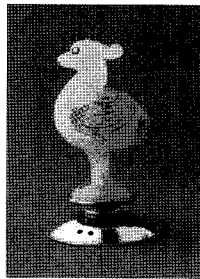
標本遺物로 선정된 옥로정자는 이화여대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8점,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1점, 단국대학교박물관 소장 3점, 개인 소장 1점으로 총 13점이다.

옥로의 樣式을 분류해 보면 단독형인 해오라기형, 초롱비녀형, 多層透彫 안에 해오라기형, 다층투조 안에 십장생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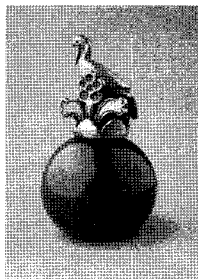
이들 두 종류로 대별하여 형태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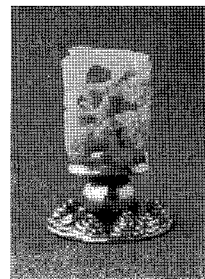
<그림5> 玉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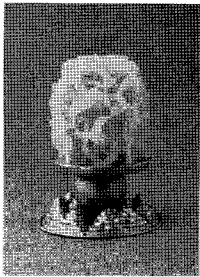
<그림6> 玉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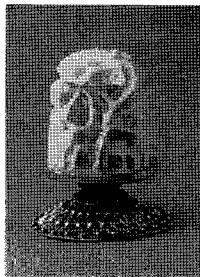
<그림7> 玉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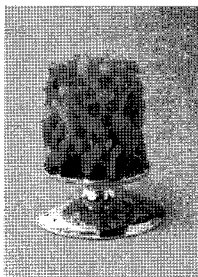
<그림8> 玉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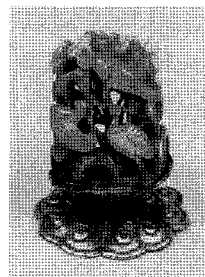
<그림9> 玉鷺



<그림10> 玉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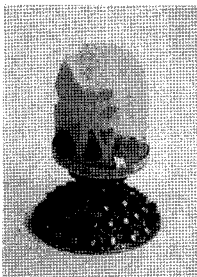


<그림11> 玉鷺



<그림12> 玉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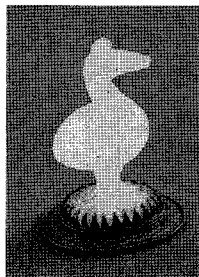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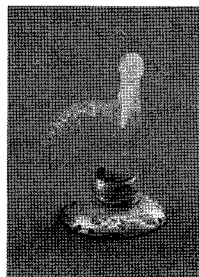
<그림13> 玉鷺
個人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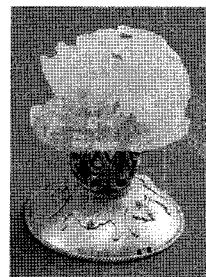
<그림14> 玉鷺
高麗大學校 博物館 所藏



<그림15> 玉鷺



<그림16> 玉鷺
石宙善紀念博物館 所藏



<그림17> 玉鷺

첫째 단독형으로는 <그림5~7>과 <그림15~16>이 있고, 둘째 복합형으로는 <그림8~14, 17>이 있다.

단독형으로<그림5~7>은 백로 한 마리를 눈·날개·꼬리 부분에만 간결한 음선으로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5>의 받침대는 동에 도금을 올린 것으로 製法이 금관자와 같다. 갓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가로 한 쌍의 구멍이 세 군데 뚫려있다. <그림6>의 받침대는 1998년 새로 제작한 것이다.

<그림7>은 백로가 옥이 아닌 금속이고 받침대가 자마노의 큰 球形으로 되어 있다. 갓에 부착시킬 수 있는 받침대는 유실된 것 같다.

<그림15>는 <그림5>와 흡사한데 받침대가 백로와 어울리지 않고 허술하다. 너무 촘촘한 鋸齒文과 금속 재질로 보아 후세에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림16>은 부리가 유난히 길고 머리위에 문양이 돋보이는 것이 백로라기보다는 두루미에 가깝다.도금이 된 받침대는 상태가 안 좋으며 옥로를 구멍을 뚫고 세운 것이 옛 솜씨 같지 않다.

복합형으로 <그림8>은 일건 초롱잡의 簪頭를 연상시키는 옥로이다. 민영익 사진에서 본 옥로립의 옥로와 같은 종류이다. 받침대는 <그림9>와 동일하다.

<그림9, 10>은 앞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한다. <그림11>의 주제는 십장생으로 청색의 옥으로 열 가지 동식물을 충실하게 묘사 조각하였다. 다층 투조 기법의 조각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받침대는 1998년 신작이다.

<그림12, 13>의 주제는 ‘해오라기가 연 꽃을 따는 鷺採荷葉’이다. <그림12>의 받침대는 2000년 이후 새로 제작한 것이고, <그림13>의 받침대는 근래 중국에서 수입된 것 같다. <그림14>는 세 마리의 해오라기가 다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고, 발밑에는 蝙蝠 다섯을 양각하여 오복을 상징하고 있다.

<그림17>은 옥으로 조각한 백로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이다. 받침대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편 편복 5마리가 양각되어 있고, 중간 부위인 구형에는 속이 보이도록 七寶紋이 연속해서 투각되어 있다.

2. 戰笠[竹戰笠]과 金銅頂子

전립의 頂部에도 金銅製나 銀製, 鍮製 등의 정자를 장식하는데, 금동정자 정부는 크게 白鷺形과 寶珠形이 있다. 그 양식은 博山모양과 연꽃·연봉·매화·박쥐·輪寶 무늬 등을 조각하거나 투각하였다. 정자는 정부·중간 부위·받침대 3部分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중간부위는 360도 회전이 자유롭고 공작우나 상모를 달 수 있는 고리가 붙어 있다.

『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전립의 정자에 관한 기사로는 정조 10년(1786) 6월조에 병조 판서 鄭昌聖이 장교들의 군복과 전립의 정자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전립에 다는 정자에 혹 瑠璃 장식에 있는데 또 다 고쳐 달아야 하는 가를 여러 장신에게 물어 보고 있는데 이에 어영대장 李柱國이 이미 象毛를 달았으니 瑠璃頂子도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고, 敎示하기를 전립의 정자는 본래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닌데 어찌 꼭 고쳐야 하겠느냐고 하고 있다.

전립의 정자에 범랑장식이 있는 것이 현존 유물에도 많이 있는데 상기의 내용을 감안하면 범랑장식이 있는 금동정자가 오래된 장식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정조 17년(1793) 10월조에 용복·군복 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 전립 위에 정자로 간략히 직품을 표시하되 鍍金·雕金·純銀·鏤銀·繫結·木刻과 같은 등속으로 구별을 하고 작우와 상모로 문관과 무관을 분별한다면, 또한 문란하고 잡박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전립상의 정자로서 品節을 식별하게 하는 것이 편의에 합당할 듯 합니다”.¹⁶⁾ 라고 병조 참관 林濟遠의 상소도 있었다.

현전하는 유물에는 상기의 정자 종류가 모두 남아 있는데, 병조참관의 상소대로 정자에 따른 직품의 구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정자의 재료와 꾸밈으로 추측할 뿐이다.

조선후기에는 전립의 頂部에 장식하는 정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甌笠은 재료가 毛인 데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笠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근원은 胡風에 두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전립을 무인들의 입자로 사

용한 것 같다. 널리 사용된 명칭은 戰笠인바, 이는 주로 무관의 戎服之具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으로서, 군인의 입자임을 지칭한다¹⁷⁾.

氈笠의 재료가 되는 氈으로 만든 모자의 수용은 고려말기 禡王「始革胡服」할 때, 두식에서 보인다. 즉 “동서 칠품 이하 氈帽絲帶 … 서반 5·6품 高頂笠 氈帽絲帶”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전립이 관복에 착용하게 된 시초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戰笠[氈笠]이 우리나라에서 무관의 용복에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조선중기 이후로 보인다. 즉 『燃藜室記述』관복조에 “서북 사람들이 전립을 많이 썼으니 대체로 오랑캐 풍속에 가까운 때문이었다. 광해군 10년 무오년(1618) 요동에서 전쟁할 때에 국내에서 흑 전립을 쓰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본받아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정묘년 호란 때에는 사대부도 흑 썼으며 무인들은 대관이라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氈笠은 흑 戰笠이라고도 하니 이것이 곧 전쟁이 있을 징조였던가.”¹⁸⁾라고 하였으니, 정묘년(1627) 간에 氈笠이 크게 보급되었음과 특히 戰笠이 군용으로 전립으로도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靑莊館全書』에서도 전립이 무인 용복지구이 있음은 물론 한때 일반에까지 사시를 통해 착용이 되었고, 더구나 그 형태도 포립과 같이 첨[簷]이 넓은 것이 유행되었다고 한다.

毛戰笠은 원래 그 재료가 毛 제품인데서 氈笠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입자인 흑립의 변천에 따라 가벼움과 사치함을 쫓아 만

들어 썼던 전립이 竹戰笠이다.

죽전립에 관해서는 『林下筆記』권18에 “영조 26년(1750) 군병 전립에 종[鬃]을 쓰는 것을 금하였다. 우리나라 전립은 毛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간혹 鬃尾로서 대신하는 자가 있으니 鬃의 가벼움과 사치스러움을 취한 것이다. 모립은 氈厚하기 때문에 丸鑊이 뚫지 못한다. 그러나 종립은 堅薄하여 쉽게 뚫린다. 대개 탄환과 화살촉은 견고한 것을 뚫는데는 이로우나 錐[鬚]한 것을 뚫는 데는 불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립에 종[鬃]을 쓰는 것을 금하게 하자”는 기록이 있다. 이는 바로 영조 이전부터 전립의 재료에 말총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헌종 7년(1841) 3월조에는 근래 장신이 모두 죽전립은 착용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구례에 의하여 모전립을 착용하라고 하였는데 『大典會通』예전 의강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으며, 『增補文獻備考』에는 고종 원년에 문신의 죽전립을 모전립으로 고치라고 명한 기록으로 보아 조선말기에는 문신도 죽전립을 착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의 고종대 문신 李禧晉의 죽전립으로 확인된다.

모전립이 정식이기는 하나, 영조대를 전후로 하여 말총이나 細竹絲의 絲笠 혹은 죽전립이 유행되었고, 조선말기 까지도 착용 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毛로 만든 전립이 전란 중에는 실용적인 군모로서의 구실을 했으나 종전 후에는 무겁고 거친 모전립 보다는 鬃이나 竹으로 만들어 가볍고 보기 좋은 죽전립 쪽이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철종의 어진을 보면 군복 차림에 입



<그림18> 竹戰笠을 쓴 哲宗 御眞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그림19> 竹戰笠을 쓴 捕盜大將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자형의 관모를 쓰고 있는데, 관모는 覆鉢形의 모옥과 옥 봉황장자 장식, 공작의 깃을 양태 위로 내려뜨린 형상으로서, 전립의 형태이다<그림 18>. 그런데 이 전립은 일반적인 모전립이 아니고 말총이나 細竹으로 만든 것임이 주목된다.

구한말 사진첩(1900)에는 포도대장(Police Chief)이라는 제목 하에 죽전립을 착용한 귀한 사진이 있다<그림 19>.

또한 『增補文獻備考』 고종 2년(1865) 7월에 前任 將臣이나, 現任·前任大臣이 군복이나 융복을 하였을 때는 紗笠戰笠의 帽頂에 옥로 장식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⁹⁾.

그런데 현전 유물로는 죽전립 모정에서 옥로 정자가 아닌 금동정자만 볼 수가 있다. 이것은 공작우와 상모를 달기 위해서는 금동정자가 더 적합하기 때문인 것 같다. 다만 철중 어진에 옥 봉황장자는 공작우를 달 수 있도록 특별 제작을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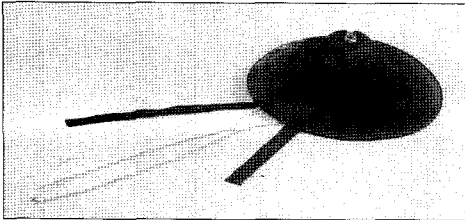
현전 유물 가운데 대부분 옥로정자에는 구조상 금동정자와는 달리 공작우와 상모를 달 수

있는 고리가 없으며 고리가 부착된 옥로정자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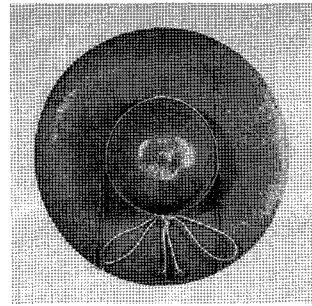
현전하는 죽전립으로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각각 1점씩 총4점이 소장되어 있다.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그림 20>과 담인복식미술관 소장의 죽전립은 원래 모정에 옥로장식이 없었고 후에 부착한 것이라고 한다.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21>과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죽전립에는 자기것의 금동정자가 부착되어 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소장의 전립에는 파란[瑛瑯]이 약간 보이는 금동정자가 달려 있다. 정상에는 해오라기가 앉아 있고, 중간 부위인 구형에는 칠보문이 연속 투각되어 있으며 속은 비어 있다. 여기에는 고리가 달려서 공작우와 상모를 달게 되어 있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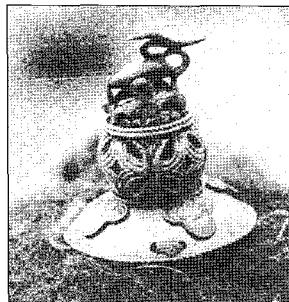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죽전립의 금동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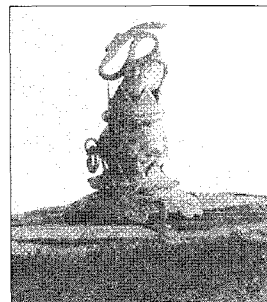
<그림 20> 竹戰笠
『冠帽와 首飾』



<그림 21> 竹戰笠
忠北大學校 博物館 所藏



<그림 22> 金銅頂子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所藏



<그림 23> 金銅頂子
忠北大學校 博物館 所藏

의 양식도 상기와 거의 비슷하다. <그림23>은 다만 해오라기 목의 조형이 더 가늘고 여유로워 보인다. 특히 이 죽전립은 고종대 문신 통정대부 **李喜晉**의 것으로 착용자를 알 수 있어 다른 유물의 典據가 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經國大典**』에 있는 頂子제도는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예전 의장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 고려말기에 백관의 품등에 따라 제정한 정자 장식의 제도가 말기까지 변화 없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말기에 上狹下寬의 圓筒形 帽屋에 양태를 단 형태의 흑립에 옥정자를 장식한 **閔泳翊** (1860~1914)의 사진인 <그림3>과 또 하나의 조선풍속 엽서사진(1920년대)의 사진인<그림4>는 이를 증명해 주는 좋은 자료이다.

1) 金銅頂子の 形態別 特性의 分析

표본유물로 선정한 금동정자는 이화여자대학교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6점과 개인 소장 2점으로 총8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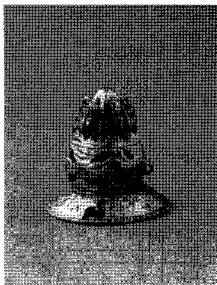
금동정자의 일반적인 조형은 전체가 길이로 3등분 되어서 칠보문의 중간부위는 360도 회전을 할 수 있으며 고리가 달려 있다. 전립의 구조상 공작우와 상모의 부착이 반드시 가능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중간 부위인 구형의 안쪽과, 밑 받침의 안쪽도 역시 비어 있다.

금동은 금관자의 재료와 마찬가지로 동에 도금을 한 것인데 이 같은 조형은 무게를 가볍게 하기위한 방법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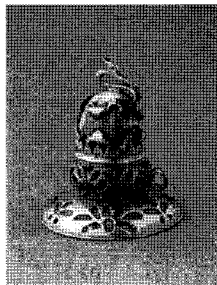
금동정자의 상부는 대부분 4~6면의 寶珠形과 날렵한 해오라기가 착석한 모습의 2가지 형이다. 다음은 정자의 부위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어 개개의 형태를 비교 고찰해 보기로 한다.

지름이 2.4cm, 높이 2.6cm의 소형 금동정자 <그림24>의 하단은 蝙蝠紋을 5개 음각했고 중간부위는 七寶紋을 추상화하여 투각하였다. 상부는 밑을 蓮瓣紋으로 돌리고, 寶珠紋을 중심으로 타오르는 火焰紋으로 4개 구역을 만들었다. 구역 사이에는 연판문 1개씩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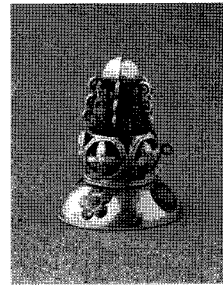
<그림25>은 하단의 받침은 파란[班斚]으로 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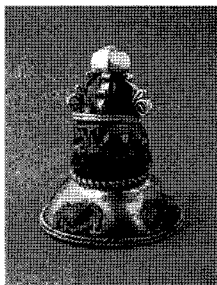
<그림24> 金銅頂子



<그림25> 金銅파란頂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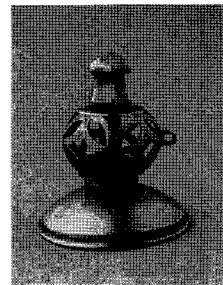
<그림26> 金銅파란頂子



<그림27> 金銅파란頂子



<그림28> 銀頂子



<그림29> 銅頂子

梨花女大 瀟人服飾美術館 所藏

花紋을 장식하고, 중간은 칠보문을 연속하여 투각하였다. 상부는 연판문을 연속 山形으로 돌리고, 파란의 연잎 위에는 목을 길게 늘어 곡선미를 강조한 해오라기를 조각하였다.

<그림26>의 하단에는 파란의 매화문과 도식화된 壽字를 만들어 부착했다. 중간 부위는 둥근 원안에 4개의 꽃잎을 십자형으로 투각하고, 상단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네 마리의 학이 화염문으로 나뉘어진 4구역 사이마다 조각되어 있다.

<그림27>도 위와 비슷한 조형인데 하단에 편복문 5개를 따로 만들어 부착시켰다. 중간 부위가 상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經國大典』에서 대군은 금정자, 당상관 이상은 은정자를 달았다고 했다. 금동정자와 은정자는 대개 전립에 달았다. 구형의 중간 부위의 칠보문 안에는 6잎의 국화를 투각하고, 중간 부위와 하단은 넓실거리는 물결 같은 조각으로 구분을 지었다. 상단은 6면의 보주형의 밑에 연판과 초화가 밀받침이 되어 주고 있다. 하단에는 如意頭紋이 돌려가며 양각되어 있다<그림28>.

<그림29>는 6면의 보주형 상부와 칠보문이 투각된 중간 부위에는 상모나 공작우를 달 수 있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끝이 진 바닥 둘레 부분에는 전립 帽部에 실로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한 쌍씩의 구멍이 4군데에 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단순미가 돋보인다.

3. 孔雀羽, 象毛(紅纓)와 虎鬚

1) 孔雀羽

공작우는 孔雀尾라고도 부르며 嶺羽·轉羽·傍羽·秀羽·雀羽·翳羽라는 명칭도 있는데 역시 입식의 하나이다. 전립의 정자에 매달아 장식하거나 호수와 같이 주립·초립 양쪽에 꽂았다.

『湛軒書』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衣冠制에 관한 필담 중 “공작 깃[翎]에도 분별이 있는가?” 하고 묻는 중국인의 질문에 답한 洪大容이 없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공작우에는 품급에 따른 구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帽頂은 무엇으로 하는가 하는 중국인의 물음에 답헌은 ‘銀’으로 한다고 말하고 武官도 마찬가지이며, 품급에 관계없이 모두 한결 같다고 대답을 하는데, 帽頂의 장식을 은으로만 한다는 답헌의 대답은 앞서 모정의 여러 종류의 장식들을 보건데 불확실한 답변이라고 사료 된다²⁰⁾.

『朝鮮王朝實錄』에 보면, 선조 30년(1597) 9월에 왕의 插羽 笠制와 용복제 논의에 예조에서 중국에도 없는 羽笠 제도를 없앨 것을 촉구했으나 왕은 모자에 깃을 꽂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고치지 않는다고 하였다²¹⁾. 이 유럽제도는 董越의 『朝鮮賦』에도 백성들은 초모를 쓰되, 턱에 모두 구슬을 늘이고, 이마를 등글게도 하고 모나게도 하는데, 색은 다 흑로로 한다. 興阜는 四葉靑衫을 입고, 이마에 새 깃을 꽂는다. ²²⁾고 하고, 고구려벽화에 보이는 조우관이나 사마르칸트(Samar Kand) 아프리카 아프라시아 벽화인 물 고구려사신의 조우상의 관식도 오래된 풍습임을 말해준다²³⁾.

또한 순조 34년(1834) 2월에 김소의 승상과 중국제도 준용에 대한 반박에서 우리나라 백관의 장복이 중국 제도를 본받아 재용을 소모하는 근본이 되며 용복·군복은 두 가지로 병폐됨이 매우 크며, 호수·작우는 일에 보조될 것이 없으니 간략하게 하여 폐단을 없애자는 지평 李秉瑩의 상소가 있었다²⁴⁾.

같은 해 4월에는 관복제도의 개정의 관한 啓에서 좌의정 沈象奎는 붉은 말갈기로 결조하는 笠子의 상모는 낭비가 심하고 꾸밈이 번잡하며 바람을 받는 것이 괴로우니 앞으로 입자는 말갈기를 사용하지 말고 꾸미는 것도 雀羽·傍羽·嶺羽와 같은 형식도 또한 버려야 한다고 상소했다. 입자의 수식인 상모와 작우 등이 낭비가 많은 것을 지적하고, 예절과 크게 관련이 없으니 없애기를 주장하고 있다.

호수에 관해서는 다만 호수가 언제부터 사용된 것인지 알지 못하나 시위로서 용복을 입은 자들은 笠에 반드시 이것을 꽂으며 또 객으로 올 때에도, 예전에는 이런 장식을 했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없앤다면 혹 예전의 의례에 비해 너무 간략하다고 생각될 것이므로 보전하는 것

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²⁵⁾.

공작우는 공작의 꼬지 무늬를 맞추고 남빛의 새털을 모아서 尾扇과 같이 결어서 만든 것이다. 능행 때는 별감·兼內吹(궁중에서 군악을 연주하던 악대)·司僕寺(궁중의 수레와 말 따위를 관리하던 관아)의 鞍籠使令(수레나 가마를 덮는 우비를 갖고 다니는 사령)·거덜(사복사에서 말을 거두어 주던 하인)들도 초립에 꽂았다.

또한 삼일유가의 선두에서 흥을 돋우는 優人[俳優]이나 김홍도가 그린 평생도의 우인들의 초립에서 공작우를 볼 수 있다.

이밖에 『武藝圖譜通志』에 擊毬者가 쓰는 중립[鬘笠]에는 翠羽·虎鬚를 꽂는다고 했는데²⁶⁾, 취우는 글자 그대로 물총새털인지 미지이다. 이상의 공작우는 모두 양쪽으로 세워서 꽂는 것이다.

순조 11년(1811) 金履喬를 정사로 하는 일본 통신사 인물도에도 使令[羅匠]과 樂人[吹手]의 입자에서 아름다운 공작우를 꽂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림30>의 공작우 그림의 설명에는 “『진찬의궤(純祖己丑: 1829)』·공작우 五十個 『가례도감의궤(顯宗明聖后)』辛卯 7月 22日”이라 적혀 있다. 순조대의 공작우 형태를 알 수 있는 그림이다.

군복의 전립 입식의 특징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은정자나 도금정자의 중간 부위에는 상모나 공작우를 달 수 있는 고리가 있고, 360도 回轉이 가능하며 공작우 끝은 多面으로 된 銀이나 銅으로 마감하였다.

장서각 소장 『궁중발기』에 조대비 능 봉심차 따라가는 별감 입자 가운데 朱笠一件價에서 공작우일건가가 「十六兩」이고, 전립일건가에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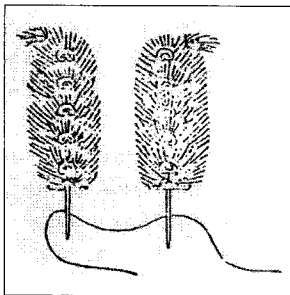
작우일건가는 「九兩」이다. 주립은 양 편에 꽂기 때문에, 1점을 꽂는 전립보다 가격이 높은 것 같다.

현전 유물에는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죽전립과 공작우 3점이 있다. 공작우 1점은 죽전립에 부착되어 있다<그림31>. 공작우 위에는 남색의 가벼운 새털이 덮여 있다. 공작우는 폭이 19cm, 길이가 25cm 이고, 남색 새털은 폭이 15cm, 세로가 15.5cm이다. 6面으로 된 끝의 은장식에는 파란[靑瑯]으로 龍이 그려져 있다. 용의 윗부분은 하늘색, 아래 부분은 진보라색이고 길이는 3.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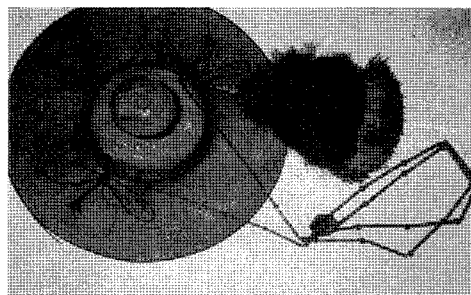
또 다른 공작우의 폭은 18cm, 길이는 25cm이다. 남색 새털은 폭이 15cm, 길이 13cm이다. 끝의 은장식은 6面으로 각 면마다 음각을 한 위에 파란으로 장식을 했다 竹이 2面, 매화가 2面, 국화, 연화가 음각된 위에 파란으로 장식했다. 일반적인 것은 銅으로 6面을 만드는 것인데, 이 죽전립의 공작우 2점은 작은 부분에만 장식에 신경을 쓴 것이 놀라울 뿐이다. 나머지 1점도 비슷한 형태이다.

周錫保의 『中國古代服飾史』에서 중국의 공작우와 상모의 이용을 살펴보면, 명에서는 홍전립에 정자를 장식하는 외에도 신분에 따라 남빛으로 염색한 고니[天鵝]의 羽翎을 둘 혹은 셋을 장식하거나, 鸞尾를 장식하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데 청대에는 이러한 명의 제도를 조금 바꿔 공작미를 冠 뒤에 내려뜨리고, 또 單眼·雙眼·三眼·沒有眼的 藍翎으로 구분하여 그 귀전을 구분하였다²⁷⁾.

그런데 조선시대에 품계가 높은 무관이 쓰는 전립은 정자 장식은 물론 상모·공작우·운월



<그림30> 孔雀羽
『韓國三才圖會』下



<그림31> 竹戰笠의 孔雀羽
서울大學校 博物館 所藏

아를 장식하고 밀화패영을 달았는데 특히 공작우의 장식이 청의 제도와 유사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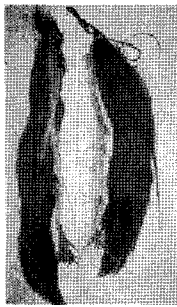
2) 象毛 [禦毛・紅纓]

공작우와 짝을 이루는 입식으로 홍영이 있다. 홍영은 ‘상모’로 언해된다. 이는 붉은 색 모자의 끈 또는 帽의 정상에 하는 붉은 색 이삭모양[穗子]의 장식을 뜻한다²⁸⁾. 즉 이것은 조선시대의 상모 또는 삭모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홍영 역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잡화물품 목록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老乞大』(原刊)에서 부터 이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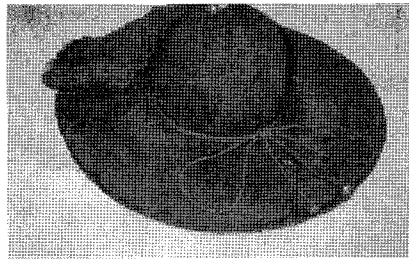
대에도 이미 사용되어졌음을 보여준다²⁹⁾.

조대비 능 봉심차 따라가는 별감 입자 전립일 건가에 象毛價가 「十二兩」으로 공작우가 「九兩」보다 비싸다³⁰⁾. 길이가 긴 붉은 말갈기로 만드는 상모는 수입품이므로 가격이 자연히 높은 것이 아닌가 한다.

현전 유물로는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죽전립에 상모 2점과 육사박물관 소장의 전립에 부착한 상모가 있다. 죽전립의 상모의 금속장식은 한 점은 銀이고 다른 한 점은 銅이다.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상모 <그림32>의 금속장식의 형태는 6면의 길이 2cm의 연봉형으로 위는 고리가 있고 아래는 스프링으로 되어 끈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은장식의 상모의 길이는 55cm



<그림32> 象毛(말갈기) 서울大學校 博物館 所藏



<그림33> 象毛(明紬)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所藏

<표3> 『궁중발기』에 나타난 공작우·상모·호수³¹⁾

	명칭	수량	내용	출처
호수, 공작우	호수 공작우 虎鬚 孔雀羽		(주립) 朱笠	『귀묘십이월이십일성두시점삼차비불기』 『병인이월온산송악별기도고관진적불기』 『귀특스월산가는(불기)』 『笏子件記』 『임진구월산드은디소입불기』
	호수 공작우		(두면)	『병인이월온산송악별기도고관진적불기』
	공작우 孔雀羽		(전립) (戰笠)	『산가는불기』 『귀특스월산가는(불기)』 『笏子件記』 『임진구월산드은디소입불기』
	공작우		(초립)	『산가는불기』
	象毛		(戰笠)	『귀특스월산가는(불기)』 『笏子件記』 『임진구월산드은디소입불기』

이고, 붉은색 상모의 상부는 노란색 실로 감았다. 장식으로 곁들인 것 같은 봉술의 길이는 43cm이고 상부는 금사로 감아서 호사스러워 보인다. 銅製는 상모 길이가 44cm이고 노란색 봉술의 길이는 40cm이다. 형태는 은제와 동일하다.

육사박물관 전립의 상모는 길이 26cm이고 명주 푼사로 만들어서 많이 엉켜있었다<그림33>. 전립은 짐승의 털을 다져서 담을 만들고 그것을 골에 넣어서 만든 고급품이다. 양태 안쪽은 남색팔보문단이고 넓은 진보라 명주 끈이 달려 있다. 지름과 높이가 3cm이고 파란이 약간 있는 금동정자가 달렸다.

3) 黑笠·草笠·朱笠의 虎鬚

호수는 호랑이 수염으로 보리 이삭처럼 만들어 입자의 장식으로 쓰던 것이다. 호수를 갖게 장식하게 된 동기는 이궁익의 『燃藜室記述』에서 보면 “호수는 옛날에는 없던 제도이다. 옛날에 현종이 온천에 거동할 때 풍년이 크게 들었는데 임금의 매우 기뻐하며 호종하는 신하들에게 명하여, 각각 보리 이삭을 꽂아 풍년을 기념하게 하였다. 그 후 군복에 호수를 꽂는 것은 곧 보리 이삭이 남긴 뜻이다. 지금도 禁軍 중 가난하여 호수를 갖추지 못하는 자는 흑 보리 이삭으로 대신하니 여기서도 옛일이 전해진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유래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리 이삭 즉 麥穗가 호수로 변형된 것은 영조 26년(1750) 9월 과천 현 행차 시 왕이 “패영과 함께 초영을 하게 된 것은 옛날 거동에서 비롯하였는데, 그것이 중단될까 염려하였더니 그 후 성풍이 되었다.”고 하였다. 승지 오연유가 “듣자하니 호수도 그 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백관이 笠上에 맥수를 꽂다가 그 후로는 호수를 삽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영조대에 이르러 비로소 호수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조대의 실학자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菴葉記에는 “군복 중에 말꼬리와 돼지털로 만든 갖에 호랑이 수염과 푸른 것으로 장식하는 것은 더욱 개정해야 옳다. 별도의 冠巾을 반포하여 큰 모자에 짧은 갖 양태를 가진 갖을 쓰게 하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먼저 혜택을 볼 것이다.”라

한 것을 보면³²⁾, 당시에 말꼬리와 돼지털로 만든 갖은 주립이나 전립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호수와 공작우의 장식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공작우와 호수가 당시 유행한 것 같다.

그런데 정조 17년(1793) 10월조에 보면 관중 추부사 朴宗岳이 용복제·군복제 개정에 대한 劄子를 올려 아뢰기를, “전립 위에 꽂는 호수와 작우는 또 차등을 취하기 위해 장식된 것이란 말이 전해지는데 그것 또한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잠깐 사이에 변통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에서 호수와 작우가 등위에 차등을 두기 위해 장식된 것이라는 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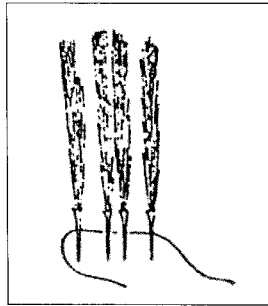
또한 고종 1년(1864) 7월에는 대왕대비의 명으로 호수와 패영을 장식한 주립을 금지했다가 고종 10년(1874)에는 조신의 용복에 쓰는 주립·호수·패영을 다시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리이삭은 마르면 부러져 상하기 쉬우므로 여기서 고안한 형태가 나무 꼬치에 호랑이 수염을 아교로 붙여 보리 이삭처럼 만들어 사용한 것인데, 쉽게 구할 수 없는 호랑이 수염을 충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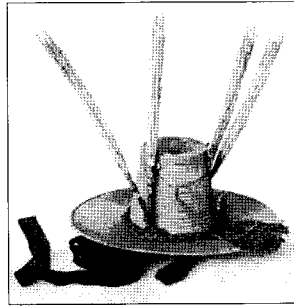
현전하는 유물을 보면 나무 꼬치의 밑 부분은 뾰족하게 깎고, 줄이 통과하도록 구멍이 뚫려 있다. 바로 위는 장식적으로 고동색 종이를 5줄 감았다. 다시 나무 꼬치 주위를 돌려가며 호수(뾰뾰하고 긴 흰 수염처럼 생김)를 박고 흰색 종이 7줄로 감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4~5줄을 만들고 정상의 나무 꼭지에는 그자형 뼈를 박아 마무리하였다. 손상이 쉽기 때문에 호수 집에 넣어 간수한다. 4점이 한 組가 되어 호수 집에 길이를 꽂아서 보관하게 된다.

『韓國三才圖會』 ‘虎鬚’ 그림<그림34> 『進饌儀軌：純祖己丑(1829)』도 현전하는 유물과 흡사하다. 그림설명은 “我肅廟行東郊，見麥取插朱笠，故今以虎鬚位笠飾 『송남잡식』(林氏本) 橘，衣食類，戎服虎鬚”이라고 적혀있어³⁴⁾ 순조 때의 호수의 形制를 알 수 있다.

조대비 능 봉심차 따라가는 별감 입자, 주립에서 虎鬚一件價가 「十二兩五錢」으로 공작우一件價 「十六兩」보다 가격이 싸다. 당시 호랑이 수확이 많아서 인지 호수의 가격이 예상보다



〈그림34〉 虎鬚
『韓國三才圖會』下



〈그림35〉 草笠
『韓國服飾史』

비싸지 않은 것 같다.

호수의 유물 중에는 초립의 중앙·좌·우의 세 군데에 한 쌍씩의 호수를 꽂는 대롱장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 초립에 호수를 꽂는 방법을 보여주는 典據가 되는 유물이 있다<그림35>.

笠子에 호수를 꽂는 경우를 찾아보면, 『萬機要覽』軍政編에 “무예별감 198명 가운데 門 무예청이 87명인데 흥천익을 입고 황초립을 쓰며 호수를 꽂는다.”라고 했고, 傳 金弘道가 그린 평양감사 향연도에서 부벽루연회도·연광정연회도·월야선유도의 裨將들은 흑립에 호수를 전후 좌우에 장식하고 있다. 호수는 주립·초립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흑립에도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箕山風俗圖帖』 풍속화 가운데에도 행렬 선두에서 길을 안내하는 두 명의 나장 笠子에도 호수가 보인다. 그 뒤를 따르는 사령 두 명은 전립에 공작우를 좌우로 세워서 꽂고 있다. 나장의 입자에 공작우 장식은 金弘道의 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호수장식을 입자에 꽂은 나장도 볼 수 있다.

같은 시대 같은 화가의 그림에 입자의 장식이 다른 것은 두 가지 장식이 모두 허용되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다.

II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후기 笠飾을 현전 유물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조명해 보고, 頭飾을 다른 어느 복식보다도 중요시 하였던 옛 우리

의 생활문화의 일면을 고찰해 본 것이다.

고려 말 의관제도에 가장 큰 변화는 元 복식의 채용에 의한 것으로 이 변화에 따라 관모도 元의 鈹笠 사용이 눈에 띄며, 백관의 관모로 頂子 장식에 차를 둔 흑립이 제정되었다.

이에 반하여 전립은 원래 胡族 계통의 것으로 조선왕조시대의 입자와는 다른 것이다. 광해군 7년(1615) 만주출병이 있은 이후 성행하여 丁卯·丙子 양란 이후부터는 군민 통용의 입모가 되었다.

초립은 입초로 만든 것으로 조선 초의 입자의 기록들은 초립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용도는 왕의 하사품, 士人과 庶人을 구별하는 징표, 여인의 쓰개류, 군모의 代用, 喪主의 쓰개 등으로 쓰임새가 다양하였다.

입식과 입영은 입자가 단조로우므로 수식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 재료로써 귀천과 계급을 가르기도 하였다. 입식은 입자의 수식품으로 頂子·孔雀羽·象毛[粟毛]·虎鬚[麥穗]·笠纓·烏銅笠飾·耳錢[雲月兒]·鈎纓子 등이 있다.

입자의 정자 장식은 중국은 元代에서 明代로, 清代에 와서는 細分化되고 精緻化 되었다. 반면에 조선시대 정자 장식은 고려말(1367)에 시작하여 조선말까지 그대로 이어온 것을 유물과 사진·엽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전하는 옥로의 一部는 『朝鮮王朝實錄』 『老乞大』 『궁중발기』의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박물관에 소장된 죽전립 4점을 조사해 본 결과, 왕의 죽전립에는 각종 옥으로 제작한

백로나 봉황 정자를 부착하나, 사대부들을 금동 정자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 가 추정해 보았다. 금동정자의 頂部는 白鷺(해오라기)形과 寶珠形이 있고, 頂部·중간부위·받침대 3部分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중간부위에는 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고리가 부착된 옥로정자는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고, 전립에 옥로정자를 부착한 군복차림의 초상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궁중발기』에 있는 ‘군복노’에서 군복전립의 옥로정자를 확인 할 수가 있다.

전립에는 옥로정자와 금동정자를 계급에 따라 차별을 두고 부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옥로정자가 달린 전립을 쓴 李聖俞의 군복 초상화는 고종 초에 전임 將臣이나 현임·전임 大臣이 군복용복에 옥로장식을 허용한다는 내용에도 부합된다.

공작우는 공작미라고도 부르며 전립의 정자에 매달아 장식하거나 호수와 같이 주립·초립 양쪽에 꽂기도 한다.

純祖代에는 입자의 수식인 호수와 작우 등이 낭비가 많고, 예절과도 관계가 없으니 없애 주기를 관복제도 개정에 관한 啓에서 주장하기도 하였다.

공작우는 행행 때에는 별감·兼內吹·鞍籠使 令·거덜들도 초립에 꽂았고, 삼일유가의 優人들은 화려한 공작우로 치장하였으며, 羅匠의 입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純祖 11년(1811) 일본통신사 일행을 그린 인물도에도 나장과 樂人[吹手]이 공작우를 꽂고 있다. 공작우 끝에 동이나 은으로 만든 장식 꼭지에는 파란[瑠璃]으로 장식한 고급품도 있다.

상모는 전립의 정상에 붉은색 이삭모양의 장식으로서 『老乞大』(原刊)에 이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별감 입자인 전립의 象毛價가 孔雀羽價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붉은색 긴 상모는 수입품으로 가격이 비쌌던 것 같다. 이처럼 고려시대부터 수입해온 상모가 조선초기에는 倭使臣에게 紅氈帽·玉頂子 등과 함께 하사품도 되었으며, 말기 『궁중발기』에서는 다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호수는 호랑이수염으로 보리 이삭처럼 만들어 입자의 장식으로 쓰던 것이다. 顯宗이 온천

에 거동할 때 보리풍년을 기념하여 보리이삭을 꽂는 것이 시초가 되었다. 조선 말 호수일건가가 공작우 일건가보다 싼 것은 당시 호랑이 수확이 많았던 것이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의식 때 호수를 삽식 하는 풍속은 현종 이후부터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호수라고 지칭하였으나 麥穗도 함께 조선 말 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傳 김홍도 그림인 평안감사 향연도의 裨將들이 흑립에 호수를 꽂고 있는데 이것은 호수는 주립·초립에만 장식했던 것이 아님을 알려 준다. 『朝鮮王朝實錄』에서 호수의 남용을 지적한 내용과 부합되는 그림이다. 또한 나장의 입자에도 호수를 꽂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장은 공작우와 호수를 함께 사용한 것 같다.

純祖 11년 일본통신사 일행 중 동개와 長劍을 착용한 軍官이 호수를 꽂은 입자를 쓰고 있는 人物圖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笠子の 호수와 공작 깃털 등은 일종의 장식으로서 능소를 참배하거나 복중에는 삼가는 것을 『朝鮮王朝實錄』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이상으로 입자를 장식한 여러 가지 장식물, 즉 玉頂子·金銅頂子·孔雀羽·象毛·虎鬚 등을 살펴보았다. 이밖에 입식인 烏銅笠飾·耳錢[雲月兒]·笠纓·鈎纓자와 頂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양의 상징성에 관해서는 지면의 한계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우리의 頂子 장식은 고려말기(1367)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 공작우는 중국에서는 품계를 가리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장식적 역할이 큰 것으로 頂子和 함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공작우의 만듭새를 볼 때 지위의 차등은 있었던 것 같다.

이처럼 조선의 笠飾은 주변 국가와의 빈번한 문화적 교류 끝에 자신의 풍토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창조되어 정착하게 된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李基文 (1991).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p.221.
- 2) 丁若鏞 原著, 金鐘權 譯註 (1976). 雅言覺非. 서울: 一志社, p.150.

- 3) 서정원 (2003). 『老乞大』간본을 통해본 14-18 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 4)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獻劇出版社, p.403.
- 5)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纂 (1972). 高麗史 卷七十二 志 卷二十六 輿服. 서울: 景仁文化社, p.566.
- 6) 서정원 (2003). Op. cit., p.17.
- 7) 太祖實錄 卷6, 3年 6月 甲午.
- 8) 世宗實錄 卷103, 26年 1月 辛未.
- 9) 增補文獻備考 成宗二十二年「禮曹啓 郊外行幸時 臺諫服色 自內出玉頂子笠 賜大司憲 韓致亨大司諫成俊 遂不着戎服 甚不可也 命依 百官例 以戎服隨駕 從之」
- 10) 燕山君日記 卷44, 8年 6月 戊申.
- 11) Ibid., 卷58, 11年 五月 甲午.
- 12) 洪鳳漢·李萬運·朴容大 外 編著者 (1985). 增補文獻備考 (中) 卷七十九 禮考二十六 서울: 明文堂, p.20.
- 13) 孫京子 外 (1983). 檀園 金弘道の平生圖屏風에 나타난 人物들의 冠帽에 관한 考察, 服飾(7), pp.48-49.
- 14) 박혜진 (2006). 조선시대 후기 궁중패물 연구 -『궁중발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3.
- 15) 正祖實錄 卷21, 10年 6月 癸未.
- 16) Ibid., 卷38, 17年 10月 戊辰.
- 17) 姜淳弟 (1995). 軍服 冠帽에 관한 研究. 學藝誌(4),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p.135.
- 18) 洪鳳漢·李萬運·朴容大 外 編著者 (1985). Op. cit., p.27.
- 19) Ibid., p.21.
- 20) 洪大容 著, 民族文化推進會 編輯 (2000). 韓國文集叢刊(248) 湛軒書, 青城集 乾爭衡筆談.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p.151.
- 21) 純祖實錄 卷31, 30年「禮曹啓 我國羽笠之制 中國之人 甚笑之 插蓋羽出於胡俗 中原之人則但皂隸賤役 於氈笠上…請明日巡城時勿爲插羽 亦御我國貼裡 自後以爲常 傳曰 百里不同風 插羽之制 其來已久 不須改也 雖笑不妨」
- 22) 洪鳳漢·李萬運·朴容大 外 編著者 (1985). Op. cit., p.26.
- 23) 金美子 (1993). 우리나라 삼국시대 의복과 일본 의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1.
- 24) 純祖實錄 卷34, 34年 2月 乙丑.
- 25) Ibid., 卷34, 34年 4月 甲子.
- 26) 박성훈 편 (2002). 韓國三才圖會. 서울: 시공사, p.1386.
- 27) 周錫保 (1984). Op. cit., p.475.
- 28) 周迅·高春明 (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p.89.
- 29) 서정원 (2003). Op. cit., p.17.
- 30) 金東旭 (1973). 李朝 冠帽制 始末-男子 冠帽에 對하여.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p.395.
- 31) 박혜진 (2006). Op. cit., p.116.
- 32) 남미화 (2003). 조선후기 기록화에 나타난 김기무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5.
- 33) 正祖實錄 卷38, 17年 10月 己巳.
- 34) 박성훈 편 (2002). Op. cit., p.1403.